부안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포럼

대표축제 활성화 · 테마여행 10선 연계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부안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포럼이 14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장진만 축제감독 등 주제 발표자 3명을 비롯해 토론자 6명,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 등 주요 관계자 100명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포럼은 '부안대표축제 활성화 및 테마여행 10선 연계 관광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안마실축제와 노을축제 등에 따른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안을 모색했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포럼이 14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는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명량대첩축제 등을 연출한 장진만 감독이 '부안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콘텐츠 개발방안'을, 심우석 전주대학교 교수가 '부안노을축제·마실축제와 지역 관광연계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안태기 광주대학교 교수가 '위드코로나 시대 부합하는 부안 축제 콘텐츠 제언'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수범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류재현?한호성 축제감독과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부안대표축제와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부안의 자원과 관광콘텐츠를 잘 조화시켜 최고의 관광브랜드를 만들어 줄 알찬 축제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비대면 콘텐츠 발굴과 관광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포럼은 지난 7일 노을대교 건설과 연계한 부안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이어 개최됐으며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노을대교 건설에 따른 부안관광의 준비 대응전략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부안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

제5회 '혼불의 메아리', 내년 3월 말까지 모집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인 '혼불의 메아리'가 다섯 번째 여정에 나섰다.

㈔혼불문학과 전주MBC, 최명희문학관, 다산북스에서 마련한 이 공모전은 좋은 독자가 좋은 작가를 만든다는 믿음에서 시작돼 인문학적 감성을 지닌 독자를 발굴하고 그 독자들의 꾸준한 독서 활동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지난 네 차례의 대회를 통해 전국에서 1,63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주독서대전과 최명희문학관 등에서 수상작품이 전시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다섯 번째 공모전은 제11회 수상작인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 단 한 편을 대상으로 한다.

버킷리스트를 채우며 새로운 관계 맺기를 배우는 60대 남성을 다룬 이 작품은 드라마적 스피디한 전개는 작가의 필력이 훌륭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며,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면밀한 반응과 가족에 대한 위로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혼불문학상 수상작품은 한국문학이 아직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영역을 날카롭게 포착하면서도 그것을 밀도 있게 포섭해내는 역량과 기량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기존의 장르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작품으로 한국소설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독자는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A4용지 2장~7장(200자 원고지 15매~50매) 분량으로 자유롭게 쓴 뒤, 최명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 받아 메일(jeonjuhonbul@nate.com)이나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29)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3월 31일이다.

대상 1명에게 2백만 원, 우수상 2명에게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가작 30명에게 혼불문학상 수상작품 전집(10권)을 선물한다.

수상 작품 발표는 5월 중순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혼불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박물관 박현수 실장, 전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장 선임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실장이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 제8기 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북지역 60여개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모인 협의체로,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의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07년 창립됐다.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현수 실장은 협의회 창립 초기부터 협의회 감사, 이사 등을 역임하며 협의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1996년부터 전주대 박물관 학예연구직으로 근무하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시', '코로나-19 특별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 및 운영하고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교육 및 학예인력 지원사업' 등 전주대학교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현수 실장은 "전라북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선출돼 많은 부담을 느끼며 열심히 협의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문학 출판기념회 · 마한문학상 시상식 개최

출판 경과보고 · 마한문학상 제22회 김주옥 시인 · 제23회 김애경 시인 수상

익산시는 한국문인협회 익산지부(이하 익산문인협회)에서 제32집 '익산문학' 출판기념회와 함께 제22회·23회 마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익산문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익산문학' 출판 경과보고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제22회 마한문학상 수상자 김주옥 시인, 올해 수상자인 김애경 시인의 시상식도 이어졌다.

지난해 마한문학상 수상자인 김주옥 시인은 1997년 한국시로 등단하여 시집 2010년 '아가야 너의 서른에는 무엇을 보았니', 2020년 '아가야 너의 예순에는 무엇을 만났니' 등을 집필했다.

올해 수상자인 김애경 시인은 '시집 태풍 예고', '새 비상을 서둘다', '신데렐라' 등의 작품이 있으며, 우림정공 대표이사, 티앤지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제32집 '익산문학'에서 원로 문인 초대로 김옥녀 시인의 '삶과 문학'을 다뤘다. 이어 수상자 난에서 마한문학상 수상자 김애경 시인, 제32회 전북문학상과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최우수상 김형중 시인, 제9회 박화목 아동문학상 이윤구 작가, 제13회 가람시조문학상 신인상 정진희 시조 시인을 소개했다.

신입회원 특집으로 김천석, 임주동, 전근표 시인, 자매결연 협회인 안동문인협회 회원 작품, 코로나19에 대한 작품을 다뤘으며 회원들의 작품 시, 시조, 수필, 동화, 평론 등을 실었다.

정진희 지부장은 "마음의 소리를 써보고 소리 내어 읽어도 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자랑하며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 한국관광공사,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3~14일 양일 간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도내 관광숙박업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숙박업 종사자를 위한 지역별(RTO)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관광숙박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ESG와 로컬 호텔의 행복한 만남(구루미 화상사회연구소 황인선 소장) ▲로컬 호텔의 컨시어지(문화의향기 박희주 대표) ▲호텔리어를 위한 커피 클래스 및 이미지 메이킹(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관광 분야 ESG 이슈를 선점하며, 지역의 관광숙박업 분야 경영 방안 이해와 개인화 및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